

## 국가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과 행위성

손명아\*

**요약** 이 연구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수상작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탈북과 정착 경험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본다. 공모전이라는 제도화된 담론 공간에서 개개인의 서사는 주변화되고,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이야기가 생산된다. 수상작에서 '성공적인 정착'이란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례들은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규범적인 정착 담론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구조적 조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류 담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일부는 탈북과 정착 경험을 재의미화함으로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착의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류 담론의 틀에 일방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복합적인 행위성을 담지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고유한 정체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담론 공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경험, 행위성, 제도화된 담론 공간, 재의미화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20S1A5B5A1709 1877).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연구조교수, sma87@snu.ac.kr

## 1. 서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경제난으로 탈북 현상이 장기화하고 이주 동기와 유형이 변화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세대, 지역, 계층, 교육 수준, 직업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현재 삶의 방식과 지향에 따라 개개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담론은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손명아 2024; Chun 2022). 선행 연구는 정부의 재사회화 중심 정착 정책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을 규율과 교정이 필요한 집단으로 대상화해 왔다고 지적한다(강진웅 2011; 이수정 2017). 미디어 역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을 열등한 타자로 재현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선민 2014; 태지호·황인성 2012; Lee et al. 2019). 이와 같은 제도적·문화적 조건과 맞물려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배타적 인식은 점차 심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범수 외 2024).<sup>1</sup>

이러한 담론 환경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설, 시집, 자서전, 수기와 같은 출판물뿐 아니라 팟캐스트,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탈북과 정착에 관해 당사자의 경험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는 이 같은 이야기들이 남북한 분단 구조 및 출판·미디어 산업 등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자전적 글쓰기와 미디어 실천을 통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다층적 정체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김경연·황국명 2022; 김성경 2022; 서세림 2018; 엄미옥 2021; 최강미 2013; Son and Kim 2023).

1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남한 주민 대상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친근하지 않다'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앞서기 시작해 2024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0.6%가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긍정적 응답(17.5%)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범수 외 2024).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생산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정착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2014년부터 우수 정착 사례를 발굴하여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4a).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범적인 정착 사례를 홍보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통일부 2021). 공모전에 선정된 사례들은 국가가 의도한 규범적 메시지를 북한이탈주민의 자전적 수기 형태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통치성과 주체성이 교차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 대부분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타자화하는 주류 담론의 작동 방식 혹은 당사자의 자기 서사가 지닌 저항적 잠재력 가운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제도화된 담론 공간의 특징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과 그 틈새에서 행위자의 발화가 어떻게 주류 담론에 균열을 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정착 경험이 재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공모전은 이들의 경험을 어떤 서사 형식과 표현 규범을 통해 구조화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가? 이들은 주류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전유하며, 나아가 그 틀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 연구는 이주민과 난민의 행위성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책 담론의 틀에 포획되지 않는 복합적인 행위성을 담지함을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고유한 정체성이 보장되는 포용적 담론 공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 제도화된 담론 공간과 복합적 행위성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담론은 분단 체제의 산물인 동시에, 신자

유주의적 체제와 맞물려 규범적인 통치 담론으로 재생산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교육 기관인 하나원은 초기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주류 담론의 기준에 따라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통치 장치로도 기능한다.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자기계발에 매진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주체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문화와 규범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북한의 위계 구조를 내면화하도록 한다(강진웅 2011; 윤보영 2022; 이수정 2017).

정부의 공식 담론에서 '성공적인 정착'이란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노동자이자 남을 돕는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류연미·손명아 2018). 이러한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무능하고 가난을 자초한 자로 낙인찍히며, 취업의 어려움은 북한의 민족적 특성에 기인한 본질적 문제로 설명된다(Lee 2015).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순응적 행위성을 강요받는다(이수정 2017).

정부의 정책 담론은 대중 미디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현 방식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문화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미디어에 나타난 이미지는 곧 사회적 인식의 주된 근거가 된다(주재원 2018).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폐쇄된 북한 사회의 참혹한 인권과 정치경제 상황을 고발하는 생존자로 등장시키는 한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남북한 사이 문화적 위계를 드러내는 이질적 타자로 재현한다(Chun 2020). 한 보수 언론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은 탈북 여성을 빈곤하고 구시대적인 북한을 탈출한 피해자 이미지로 부각한다(이선민 2014). 가부장적인 북한 남성과 순종적인 북한 여성이라는 젠더 구도는 한국을 발전된 근대 국가로 위치시키는 효과를 낳는다(Choo 2006).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열등한 생활방식과 가치체계를 가진 '이등 국민'이라는 집단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 차별적 시선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성정현 2016).

제도와 미디어가 유사한 담론을 재생산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수기와 뉴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수기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인 자기서사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탈북 수기는 자기 경험에 대한 말하기인 동시에, 그 생산과 소비가 이념적 목적과 상업적 기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서세립 2018). 특히 해외에서 출판된 탈북 수기는 젊은 여성의 고통과 극복담에 집중하여 서구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문화상품으로 소비된다고 지적된다(김성경 2022).

뉴미디어에서도 북한과 대비되는 한국의 풍요로움을 강조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크게 늘었고,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채널도 다수 등장했다(LA Times 2021.04.13). 이러한 채널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거나 북한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Son and Kim 2023). 선행 연구는 한국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의 타자성을 강화한다고 비판한다(최종환 2021; Chun 2022).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선행연구는 주류 담론의 영향력 속에서도 자기 경험을 의미화하고 발화 주제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천을 포착한다(엄미옥 2021). 탈북 수기가 비록 대중이 욕망하는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한계가 있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삶의 영역을 넓히려는 태도는 행위성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김성경 2022). 또한, 수기에서 북한을 정치적 맥락과 분리해 그리운 고향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허용된 공적 발언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균열을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저항의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강미 2013). 즉, 자전적 글쓰기는 외부의 압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어느 한쪽에도 포섭되지 않는 자아를 탐색하는 협상의 과정으로 드러난다(김경연·황국명 2022).

뉴미디어에서도 드물지만 창의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편견에 문제 제기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뉴미디어 콘텐츠에서 밝고 친근한 일상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응한다(Yoon 2021). 탈북 청년들은 북한에서 겪었던 소소한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곳을 평범한 삶의 공간으로 재현한다(손명아 2024). 일

부 청년들은 당장의 경제적 수익보다 북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들에게 유튜브, 팟캐스트 등은 자기만의 지향과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이는 주류 담론에 편승하기보다 공익적 콘텐츠를 통해 대안적 담론을 생산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Son and Kim 2023).

이 같은 선행 연구의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의 담론적 실천을 정책과 미디어의 주류 담론을 단지 수동적으로 내면화하거나 전적으로 거부한 결과로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접촉하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Choo 2006). 지금까지 선행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담론의 재현구조와 개인의 담론적 실천이 지닌 가능성을 각각 조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이 연구가 주목하는 공모전이라는 제도화된 담론 공간은 국가의 규범적 기대와 당사자의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재구성된 자기 서사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주류 담론에 부응하거나 이를 전유하는 복합적 행위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는 보다 넓은 맥락적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공모전 수상작에는 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라는 요구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기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자격 입증’의 맥락은 국제 난민 신청자들의 서사에서도 나타난다. Clark et al. (2024)는 난민들이 호주 정부의 ‘좋은 난민’(good refugee)의 자격에 관한 담론을 내면화하고 수행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정부 담론에서 이상적인 난민은 수용 사회에 감사를 표현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로 표상된다. 난민들은 이런 사회적 기대를 인식하고 시민적 권리를 획득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망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위치시키고 가족을 부양하는 선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난민은 수용국의 도덕적·신자유주의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가치를 피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공모전 참여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수행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상작에 담긴 다양한 정착 경험은 주류 담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 정착 경험을 재의미화하는 방식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이주민과 난민의 행위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취약성 속에서 발휘하는 행위성은 구조적 제약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억압적 조건 속에서 해방과 회복을 모색하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Paret and Gleeson (2016)은 이주 노동자가 권리 침해가 있더라도 때로 참고 버티는 것을 ‘제한된 행위성’(constrained agency)으로 설명한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법적·경제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Brun(2015)은 강제 이주를 경험한 난민들이 주체성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희망으로 삶을 지탱해가는 모습을 ‘기다림의 행위성’(agency in waiting)으로 개념화한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다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다. Borges(2025)는 난민 여성의 행위성을 억압적 구조에 맞서는 ‘해방적 저항’(emancipatory resistance)과 그 제약을 헤쳐나가는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한다. 주류 담론이 피해자로서 난민 여성의 의존성을 강조하고 이들의 행위성을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저항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일상적인 생존과 회복의 실천에 담긴 다면적 행위성을 조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맥락을 제공한다. Shin(2022)은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성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유연한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의 사례는 변화한 환경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주민과 난민의 행위성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정착 과정에 내재한 사회구조의 영향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대응 사이 긴장을 포착하려 한다. 특수한 조건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발화의 공간을 확보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구성하는 복합적 행위성과 담론적 실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 3. 분석 대상 및 방법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세 가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둘째, 생산적 기여자로서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셋째,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의 안착이다(통일부 2023).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하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는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관계부처합동 2024)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단은 발표대회의 기획 취지를 “열심히 노력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첫 대회가 열린 2014년에는 총 105명이 응모하였으며,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발표자로 15명이 선정되었다. 발표자들은 300여 명의 대중과 100여 명의 하나원 교육생 앞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좌절,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인생역전의 감동”(남북하나재단 2015)을 공유하게 된다. 이들의 생생한 서사는 대중의 감화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전형과 이상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재단은 발표대회 수상작의 일부를 북한이탈주민 전문 소식지에 게재하거나 별도의 간행물로 출판해 왔다. 전문 소식지에 실린 정착 수기의 대부분이 인터뷰를 토대로 한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된 것과 달리, 수상작은 5분 발표의 구어적 특성을 상당 부분 유지한 구술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수상작 중에서 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무실을 통해 수집한 74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매년 10편 내외의 수상작이 선정되지만 일부 연도의 자료집은 유관 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된 뒤 재단은 보유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연도의 경우에는 소식지에 수록된 수상작을 분석에 포함하였다.<sup>2</sup>

2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수상작은 2014년 8편, 2016년 5편, 2017년 9편, 2018년 2편, 2019년 7편, 2020년 8편, 2021년 8편, 2022년 8편, 2023년 7편, 2024년 7편을 수집하였다. 또한, 같은 주제로 2021년 개최된 ‘재단 SNS 문학공모전’에 수록된 수필부문 수상작 5편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문에서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을 통해 수상작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담론적 효과를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주류 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재맥락화하는지 살펴본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가 어떻게 사회문화적 실천 속에서 작동하는가에 주목하여, 이를 포괄적인 사회정치적,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수상작은 정책적 기획과 선별 과정을 거친 텍스트이기 때문에, 담론의 구성 및 생산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와 권력 관계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신진욱 2011; Fairclough 1995).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에 따라 이 연구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를 제도화된 담론 공간에서의 주체의 자기재현 행위로 위치시키고, 그것의 실천적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한다(김경연·황국명 2022). 즉, 제도적 영향력이 단순히 내면화되거나 거부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적응과 조율을 통해 담론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행위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 4.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수상작을 통해 본 정착 담론의 재구성

##### 1) ‘성공적인 정착’은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이 절에서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수상작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와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대하는 정착의 서사적 기준과 표현 규범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공모전 형식의 발표대회라는 담론 공간이 탈북과 정착의 경험을 ‘성공적인 정착’으로 표준화하는 방식과 그 담론적 효과를 밝힐 것이다.

남북하나재단은 소식지를 통해 발표대회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재단은 발표대회의 목적을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

---

인용하는 수상작의 출처는 발표자 이름과 수상 연도를 표기하였다.

감대를 형성하고, 성공사례를 통해 당사자의 정착 의지를 높이며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9a). 심사 기준은 소재의 적절성과 완성도로 본 작품성(30점), 공감력과 구성력(30점), 발표주제에 대한 이해력과 적합성(20점), 정착모델화 가능성 및 활용성(20점)으로 제시된다(남북하나재단 2021a) 재단은 심사 기준과 평가단 구성, 지원자 및 최종 발표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이 발표대회가 정착 담론의 형식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정책적 기획임을 알 수 있다.

명확한 심사 기준과 형식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작의 서사 구조는 일정한 패턴을 띤다. 대부분 북한에서의 탈출, 한국 정착 초기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정착에 이르는 전형적 이야기 전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정책적 관심은 이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어떤 좌절과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청중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냈는지에 집중된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경험을 한국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선택하고 재배치하여 하나의 작품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을 요구받는다(김경연·황국명 2022).

일반적인 탈북 수기는 화자가 살았던 북한 사회의 일상, 체제에 대한 경험 등 개인적 배경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수상작들에서는 북한에서의 삶에 관한 묘사가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고향의 지명이나 탈북 시기 등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 역시 구체적인 경험보다는 “멀고 위험한 1만 2천 km의 긴 여정”(허영철 2023년 수상작),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70일”(김영광 2022년 수상작) 등 거리나 시간으로 환원된다. 드물게 소개되는 탈북의 계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희생으로 정당화된다. 특히 어린 여성 화자가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김은별 2019년 수상작) 국경을 넘은 이야기는 탈북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며, 청중의 ‘심금을 울리는’ 극적 장치로 작동한다(남북하나재단 2019a).

또한, 탈북 과정에서 경유하는 중국에서의 경험은 일부 수상작에서만 간략히 다루어진다. 김은별 씨는 “악몽에 시달렸던 중국 시절”을 회상하며 북송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착취적 노동 환경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중국은 돈을 벌

기회가 있지만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인해 상시적인 불안과 위협에 노출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수상작에서 북한과 중국에서의 역경은 그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감내할 만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된다. “온종일 식당 주방 안에서 만두 빚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아 서빙조차 할 수 없었던 중국에서의 생활”(김은별 2019년 수상작)과 “북한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고 지옥에서 또 지옥으로만 다니던” 더 혹독한 과거의 고난을 소환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의 시련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내려와 버티었던 힘으로”(김영근 2022년 수상작) 견딜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처럼 ‘성공적인 정착’ 서사에 초점을 맞춘 수상작에서는 개개인의 북한에서 성장 배경, 삶의 이력, 탈북 동기가 생략되거나 주변화된다. 그리고 정착 경험은 ‘새로운 시작’으로서 한국에서의 “제2의 인생”(김혜순 2022년 수상작)을 중심으로 서사화된다. 물론 이는 5분이라는 짧은 발표시간과 공모전의 주제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착 역시 북한에서부터 이어지는 누적적인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에서는 정착을 과거와 단절된 국면으로 재현한다. 이는 이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순간부터 개인적 삶의 맥락이 탈각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담론적 효과와 연결된다(서세림 2018).

본격적인 이야기는 한국 입국 시점이나 하나원 수료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처음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는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김정선 2021년 수필부문 수상작)던 것도 잠시, 하나원을 퇴소하고 사회로 나온 직후에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회상한다. 이는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제시된다. 강수안 씨는 “가족도 없는 혈혈단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19살”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두려울 뿐”(2017년 수상작)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초기 정착의 혼란과 고립감은 곧바로 생계라는 현실적 문제로 이어진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열정과 노력을 배로 들여야 하는 일”을 뜻하는 북한 용어인 “전투”(남북하나재단 2019a)에 비유한다. 최창일 씨는 ‘정착의 지름길’은 북한에서의 직업 경험과 무관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전에 뛰어들어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것이 정착과 배움의 지름길이기 무작정 수료 7일 만에 근처 인력사무실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인력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하여 18시까지 분채도장 일, 여성잡부 일, 빌라청소 일, 현장보조공 일 등 닥치는대로 가리지 않고 하면서 어려운 사회의 첫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군공무원으로 14년 복무하면서 명령과 지시로 굳어버린 습관들과 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는 정말 힘든 나날이었습니다(최창일 2020년 수상작).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북한에서 경력은 한국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남북하나재단 2024b).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을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자격증 취득이 요구된다. 재단은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면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류연미·손명아 2018).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고정관념은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다. 수상작에는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에서 언어 장벽, 문화적 갈등, 편견과 차별을 겪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북한에서 온 요양보호사는 우리 집에 보내지 말라고 거절당한 적도 있었고 같이 일하는 일부 동료는 못 사는 곳에서 온 거지들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욕감과 좌절감으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강예나 2019년 수상작).

강예나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시작했지만,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마치 죄를 지은 양 보는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좌절한다. 하지만 이

러한 어려움조차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탈북보다 더 어렵다는 한국 정착 생활”(엄근영 2024년 수상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낯선 사회에서 탈북민의 정착 과정은 때로는 정말 생사의 경계로 내몰리는 듯한 고통”(정민우 2019년 수상작)이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이 문제는 오로지 제가 감내하고 극복해야 하는 문제”(허영철 2023년 수상작)라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수상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근본적으로 ‘부족한 존재’로 전제할 때 성립한다. 최창일 씨는 “우리는 ‘허점’이 많고 사회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많으며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2020년 수상작)이라고 말하며, 김상진 씨 또한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2024년 수상작)에 비유한다. 남북한의 차이는 단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위계에 따른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Chun 2022).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이자 소수자로서 이들이 겪는 역경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적 특성,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환원된다(이수정 2017; Lee 2015).

따라서 이러한 서사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견디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정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규범적 담론을 강화한다. 이때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문제로 구성된다. 수상작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 예컨대 김영광 씨는 정착 초기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연되어 식비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일화를 회상하며,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도움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루었다고 서술한다. 그의 발표 제목인 “정책을 실현하라, 그것이 정착이다”는 정책의 효과적 활용이 곧 성공적 정착의 열쇠라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전혀 몰랐던 한 인간이 이렇게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정착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먼저 찾아온 통일의 주인공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김영광 2022년 수상작).

결국 ‘성공적인 정착’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갖추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 상태를 말한다. 수상작에서는 이 같은 성공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 연 매출, 보유 자격증, 자가 아파트의 평수, 회사 직원 수 등의 정량적 지표가 강조된다.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 표현은 수상작 전반에서 반복되면서 이들의 성취는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국가 정책의 성과로 귀속된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의 성공담을 정책 담론 속에서 도구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다시금 수혜 집단으로 위치 짓는 효과를 낳는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이 땅에서의 성공”은 곧 “통일”(남북하나재단 2022a)로 상징화되면서, 이들의 정착 경험은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선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전유된다. 이로써 정부의 정착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매개로 통일이라는 국가적 미래상을 구성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2) 탈북-정착 경험의 재의미화를 통한 주체의 재구성

이 절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정착 경험에 대한 재의미화를 통해 주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규범적 서사 안에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때로는 그 틀에 개입하여 표준화된 이야기를 변주한다. 이는 이들이 현재 삶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반영하여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탈북과 정착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자아 인식 및 삶의 방향성과도 긴밀히 연관된 전환적 생애 경험이기 때문이다(손명아 2024).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단순한 순응이나 저항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행위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본다.

재단은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자들은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북에 남은 가족들 앞에 떳떳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남북하나재단 2023a)라고 밝히며, 북한이탈주민을 평범한 ‘시민적 주체’로 재현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국가가 설정한 규범적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시민으로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Lee 2015). 많은 수상작에는 이 기준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진 행위자로 자신을 재현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퇴근 후에는 입에 볼펜을 물고 거울을 보면서 수도 없이 드라마와 아나운서들의 말투를 분석하고 따라하면서 연습하였고, 그 결과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보통의 사람이 되어 있고, 자기계발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도 전혀 막힘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갖추었습니다(정은지 2017년 수상작).

정은지 씨는 자신을 “자기계발”하는 “대한민국 보통의 사람”으로 위치시키며, 주류 담론이 기대하는 주체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녀가 북한 사투리를 교정하고 영어를 학습하는 행위는 단순히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민족적 표식을 지우라는 동화 압력에 대한 수동적 반응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 국제 난민들의 망명 신청 서사에서 확인되듯, 이러한 실천은 수용 사회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적 역량을 갖춘 주체임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Clark et al. 2024). 다시 말해, 정은지 씨는 한국식 생활양식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 자격을 주장한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주체적 과정(agentic processes)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Choo 2006).

그러나 정은지 씨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북한 사람 같지 않다’는 사회적 인정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야만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배타적 담론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수상작에서는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조정하는 자율적 시도가 나타난다. 예컨대 한부모 가정으로서 지역에 홀로 정착한 김성희 씨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아닌, “제가 가장 잘 하는, 그리고 오직 저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탐색하며 북한 전통주 기술을 활용해 창업에 나섰다. 초기에는 도수가 높은 북한 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남북한의 기후 차이로 해석하며 새로운 소비층을 발굴하려는 도전으로 전환했다.

창업초기 저희 술을 처음 맛본 한 분이 제 앞에서 뺨을 때리며, 이걸 어떻게 먹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지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살아온 남한사람들은 낮은 도수의 술들에 익숙하다보니 북녘의 추운 지방의 도수가 높은 술에는 이렇게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의외로 도수가 높은 술에 도전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자들을 기다리며 밤새워 더 많이 술을 빚었습니다(김성희 2023년 수상작).

김성희 씨의 이야기는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차별에도 주체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녀의 정착 경험은 저항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Borges 2025). 김성희 씨가 북한 출신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답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농번기 때마다 이웃의 일손을 도우며 “지역민들의 딸, 동생, 누이”로서 관계를 맺는 그녀의 실천은, 정착 담론을 지역 공동체에서 문화적 주체성을 협상하는 과정으로 확장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와 맺는 관계와 상호작용은 정착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김미래 씨는 일상적 노동과 인간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김미래 2021년 수필부문 장려상 수상작)를 발견한다. 그녀는 주방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동갑내기 중년 여성 동료들이 경력 단절 후에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노동 그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성공의 기준을 달리 바라보게 하고, 다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이 사례는 북한이탈주민 행위성의 중요한 차원으로서 일상의 어려움을

을 헤쳐나가는 회복력을 보여준다(Borges 2025). 물론 불안정 노동은 정착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미 부여는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다(Shin 2022).

나아가 생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서사도 발견된다. 장정혁 씨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는 극심한 노동 착취와 북송의 공포에 시달렸던 중국에서의 삶을 “북한보다 더한 지옥”으로 회상한다. 한국에 온 뒤에도 탈북 과정의 트라우마로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방에 갇혀” 지내던 그는 운동을 통해 지난 상처와 마주하며 회복해 나간다. 프로 복싱 데뷔 경기에서 패배 위기에 놓였을 때조차 그는 탈북의 기억을 소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의 서사는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을 상흔으로 남겨두지 않고 삶의 원천으로 전환하는 성찰적 행위성을 보여준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순간 탈북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상대 선수]를 공포의 존재였던 중국 공안이라고, 북한 경비대라고, 그를 넘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기에 저는 흐려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일어나 싸웠습니다. (...) 그날 제가 무패 챔피언 선수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북한에서의 삶이, 중국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의 어려움은 저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장정혁 2024년 수상작).

장정혁 씨와 같이 생애 경험을 정체성과 연결하는 작업은 일관된 삶의 이야기(coherent life story)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탈북이라는 극적인 전환은 고향, 가족과 친구, 언어, 문화와의 단절과 상실을 동반한다. 이때 과거를 의식적으로 회고하는 과정은 생애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어주고, 주제적 자아에 대한 감각을 강화할 수 있다(Camia and Zafar 2021). 오은정 씨도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글쓰기로 치유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감정의 응어리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쓰기 시작”(오은정 2024년 수상작)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었고 책 출판과 카페 창업까지 이루어냈다고 말한다. 그녀가 고향에서 카페를 열 날을 꿈꾸며 지난날을 시로 풀어내는 모습에서 미래 지향적 행위성을 엿볼 수 있다(Brun 2015).

이 같은 능동적인 경험의 재의미화 방식은 규범적 정착 담론에 균열을 내는 실천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정소금 씨는 어린 시절 중국에서의 장사 경험으로 다져진 담대함과 돈에 대한 감각이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녀는 정착의 의미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의 과정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이주 수용국의 주류 담론이 이주민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적응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의 “온전한 정착”이 법적 지위나 제도적 편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인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소금 씨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정착 조건 자체에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드러낸다.

정착의 사전적 의미 몇 가지 중에 “새로운 문화현상, 학설 등이 당연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탈북민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정착을 잘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정의는 탈북민의 정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행정적으로서가 아닌 마음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용해 주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한 정착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소금 2022년 수상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상작은 균질적인 정착 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적·성찰적·비판적 차원에서 서사를 재구성하려는 흔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서사는 주로 2020년대 이후 수상작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착 담론의 점진적인 다양화가 확인된다. 이는 최근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북한이

탈주민의 자기표현이 크게 확장된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가 생산하는 차별화되는 콘텐츠가 국가 공모전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행위성 발현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들의 발화를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01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로 정부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개관했고(관계부처합동 2024), 2023년에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가 ‘사회통합사례 발표대회’로 확대되어 남한 주민의 경험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3b). 즉,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기조가 더 많은 개별 서사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착 담론의 분화는 다시금 정책 담론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규범적 담론 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수상작을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정착 경험이 담론적으로 재구성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규명하였다. 국가 공모전이라는 제도화된 담론 공간은 북한과 탈북 과정에 관한 개개인의 서사는 주변화하고, 한국에서의 정착 경험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이야기를 재생산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정착’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표상됨으로써,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류 담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일부는 탈북과 정착 경험을 재의미화함으로써 당사자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이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착의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자아에 대한 성찰을 통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상처를 딛고 성장하는 주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상작에는 균질적인 정착 담론을 넘어 관계적·성찰적·비관적 차원에서 서사를 재구성하

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담론적 변화는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정착 담론이 복합적 행위성에 기반한 다층적인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공모전이라는 제도화된 담론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드러냈다.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는 정책적 기획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서사를 선별하는 통치 장치라는 점에서, 주류 담론을 단순히 재생산한다고 이해되기 쉽다. 대회는 참가자들의 삶을 일정한 서사 형식에 따라 배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생애 경험을 재해석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국가 공모전은 단순한 통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담론 공간이 될 여지가 있다. 엄근영 씨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오늘 저의 17년 동안 묵은 이야기를 마치 내 자녀의 이야기처럼, 내 동생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공감해주시고, 박수로 그동안 고생했다고, 잘 해냈다고 위로해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이 시간 부로 휴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17년, 27년을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 인생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정착했노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 평생 정착해가는 과정 중에 있을 겁니다(엄근영 2024년 수상작).

그러나 이 담론 공간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의적이고 협소한 기준에 따라 조건부로 수용하는 규범적 담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성공 사례만이 부각되고, 주류사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이들은 배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Clark et al., 2024). 이러한 공모전의 한계는 북한이탈주민의 역량을 특정한 방향으로 제약할 뿐 아니라, 한국 사회는 물론 그들 내부에서도 자격 여부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는 복합적 행위성을 드러냈다. 정책과

미디어는 북한이탈주민을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순응적 객체로 재현하고, 탈북 수기는 주류 담론을 전복할 저항의 주체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수상작에는 역경에 맞서 삶의 태도를 조율하는 행위성을 보여준다. 이는 억압적 구조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저항은 아니지만, 유연하게 적응하고 회복함으로써 고유한 정착 방식을 만들어가는 행위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변화된 이들의 개별적 행위성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Paret and Gleeson 2016).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가 스스로 삶의 경험을 서사화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들의 정착을 성공과 실패로 재단하기보다, 이들이 발화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담론 공간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이 지닌 삶의 궤적을 희석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구조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이수정 2017).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조건이 형성될 때, 연대를 기반으로 구조적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이 소수자의 필요와 열망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더 공정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Borges 2025).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특수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독해함으로써, 제도의 통치성과 행위자의 자기재현 사이의 동학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행위성을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를 둘러싼 정책적 맥락과 다른 담론장에서 생산된 서사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일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담론의 변화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제도를 포함해 담론의 변화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담론적 실천이 당사자의 삶과 주류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기획해 볼 수 있다.

교신: 손명아(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조교수)(sma87@snu.ac.kr)

Correspondence: Myung-ah Son(Research Assistant Professor,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sma87@snu.ac.kr)

2025.07.21 접수, 2025.07.30 심사, 2025.08.12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진웅, 2011,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 자들의 정체성 분화, 한국사회학, 45(1), 191-227.
- 김경연·황국명, 2022, 경계에서 이야기하기: 탈북여성의 자기서사와 '다른' 고백의 정치, 코기토, 97, 89-128.
- 김범수 외, 2024, 2024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 김성경, 2022, 글로벌 대중문화와 생존자의 이야기: 해외출판 탈북 여성 수기의 식민적 시선과 젠더화된 서사, 한국여성학, 38(2), 1-32.
- 남북하나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krf\\_blog/](https://blog.naver.com/nkrf_blog/)(검색일: 2025.08.10).
- 남북하나재단, 2015, 동포사랑, (55).
- 남북하나재단, 2018, 착한공감 4.
- 남북하나재단, 2019a, 동포사랑, (79).
- 남북하나재단, 2019b, 동포사랑, (80).
- 남북하나재단, 2019c,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 내가 걸어온 위대한 길,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 남북하나재단, 2020,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 우리, 함께 걸어가는길,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 남북하나재단, 2021a, 동포사랑, (91).
- 남북하나재단, 2021b,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 손과 손을 맞잡다, 제8회 2021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 남북하나재단, 2022a, 동포사랑, (97).
- 남북하나재단, 2022b,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 제9회 2022 정착경험사례 발표대회 사례집.
- 남북하나재단, 2023a, 동포사랑, (103).
- 남북하나재단, 2023b, 남북을 하나로 잇다: 우리, 하나된 마음, 행복한 통합, 2023 남북한 사회통합사례집.
- 남북하나재단, 2024a, 말하는대로, 2024 남북한주민 사회통합사례집.

- 남북하나재단, 2024b, 2024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류연미·손명아, 2018, 「동포사랑」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성 실천과 에토스, *사회과학 연구*, 44(3), 247-270.
- 서세립, 2018, 탈북자 수기에 나타난 감정과 도덕, *이화어문논집*, 45, 159-185.
- 성정현, 2016,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종족화된 낙인(ethnicized stigma)'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한국가족복지학*, 53, 79-115.
- 손명아, 2024, 탈북 청년의 미래 전망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진옥,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89, 10-45.
- 엄미옥, 2021, 탈북 여성이주 서사에 나타난 행위자성과 장소의 재구성-『짚레꼴』과 『큰돈과 큰뎀』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1), 491-518.
- 윤보영, 2022, 규범화된 조건적 환대와 도덕적 주체들의 부딪침, *현대북한연구*, 25(3), 224-268.
- 이선민, 2014,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29(2), 75-115.
- 이수정, 2017, "탈북자 심리"의 문화정치: 분단정치와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결합, *현대북한연구*, 20(2), 310-356.
- 주재원, 2018, 매개된 북한이탈주민과 타자화의 문화정치: KBS와 TV조선의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1), 5-40.
- 최강미, 201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규정 양상에 대한 小考: 자기민족지(autoethnography)적 텍스트로서의 『금희의 여행』 분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52, 322-354.
- 최종환, 2021, '탈북민 유튜브'가 재현하는 정체성의 사회학: <놀새나라 TV>에 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4), 433-478.
- 태지호·황인성, 2012, 텔레비전 토크쇼<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의 탈북 여성들의 사적 기억 재구성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하여, *한국언론정보학보*, 60(4), 104-124.
-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2023,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관계부처합동, 2024,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 <https://www.data.go.kr/data/15130934/fileData.do?recommendDataYn=Y>.
- Borges, G. M., 2025, Fighting Back, Moving Forward: Refugee Women's Agency in Stories of Resistance and Resilience. *Critical Criminology*, 33(2), 231-249.
- Brun, C., 2015, Active Waiting and Changing Hopes: Toward a Time Perspective on Protracted Displacement. *Social Analysis*, 59(1), 19-37.
- Camia, C. and R. Zafar, 2021, Autobiographical Meaning Making Protects the Sense of Self-Continuity Past Forced Migr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618343.

- Choo, H. Y., 2006, Gendered Modernity and Ethnicized Citizenship: North Korean Settler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and Society*, 20(5), 576-604.
- Chun, K. H., 2022, North Korean Defectors as Cultural Other in South Korea: Perception and Construction of Cultural Difference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0(1), 185-213.
- Chun, K. H., 2020, Representation and Self-Presen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Image, Discourse, and Voice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8(1), 93-112.
- Clark, S. et al., 2024, The “good refugee” ideal: How discourses of deservingness permeate Australia’s refugee and asylum seeker narratives.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59(1), 148-163.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Longman.
- LA Times, 2021.04.13, On YouTube, North Korean refugees chase fame, profit and under standing.
- Lee, K. et al., 2019, Discursive strategies of othering: North Korean youth on a South Korean television show. *Text & Talk*, 39(6), 725-745.
- Lee, J. E., 2015, Disciplinary Citizenship in South Korean NGOs’ Narratives of Resettlement for North Korean Refuge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8(15), 2688-2704.
- Paret, M. and S. Gleeson, 2016, Precarity and agency through a migration lens. *Citizenship Studies*, 20(3-4), 277-294.
- Shin, H., 2022, Precarity to Empowerment: The Consequenc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Coping Skills and Social Navigation. *Gender, Place & Culture*, 29(11), 1572-1593.
- Son, M. A. and Y. Y. Kim, 2023,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New Media Practices in Response to Stereotypes by South Korean Society.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32(2), 263-283.
- Yoon, K., 2021, Micro-Celebrities from the North: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Vlogging on YouTube. *First Monday*, 26(7), 11565.

## Settlement Experiences and Agency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Represented in National Contest Prize-Winning Narratives

Myung-ah Son\*

**Abstract** This study employ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prize-winning works from a national contest to examine how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defection and settlement are discursively reconfigured. The contest, as an institutionalized discursive space, marginalizes individual life stories while producing standardized narratives that center on the settlement process in South Korea. 'Successful settlement' is defined as overcoming initial hardships of settlement through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nd achieving economic self-reliance. Within these structural conditions, North Korean defectors adopt dominant discourses, yet some re-signify their defection and settlement experiences to articulate their own voices. Through reflections on self and community, they overcome trauma from the defection process, present personal growth, and articulate new meanings of settlement and integration centered on the value of labor and cultural identity. This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mbody complex forms of agency that cannot be fully captured by policy discourses. The study suggests that transforming social perceptions of minorities requires inclusive discursive spaces that ensure recognition of diverse experiences and distinct identities.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Experiences, Agency, Institutionalized Discursive Space, Resignification

---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sma87@snu.ac.kr